



등진 여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9일 안산 상록수 역 인근에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 부당성을 알리는 거리 흥보전을 하고 있다. <왼쪽>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오후 민생탐방차 충북 음성군청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 민주·한나라 대조적인 여름나기

## “악법 폐지” 땅별거리로 “9월에 보자” 내공 쌓기

정치권의 여름방학인 하한 정국 맞아 여야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쌓었던 피로를 풀며 9월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모습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휴가를 반납하고 미디어 악법 폐지를 위한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9월 임시국회 까지 한 달에 이르는 정치적 휴가 기한 동안 지친 심신을 쉬면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아직 휴가 계획을 잡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민생탐방이라는 불平民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조용히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원내사령탑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템플 스테이’를 통해 고단했던 입법대치의 후유증을 털어낼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해외시찰과 같은 특별한 일정은 잡지 않고 자택에서 책을 읽고, 하반기 정국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자문교수들과 만나 북 핵 문제 및 외교에 대한 전

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국 강연과 민생 텁방을 통해 차기 주자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해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에 온인한다.

정 대표는 당초 8월 중 남북문제와 관련해 미국 방문을 구상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계획을 중단하고 미디어 법 폐기 100일 대장정을 선봉에서 이끈다. 그는 28일 신촌에서 열린 거리 흥보전에서 “휴가철이고 모든 국민이 쉴 때는 쉬어야 하

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며 “의원직을 버리는 마당에 휴가반납을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 영남, 충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거리 흥보전, 시국대회, 서명운동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서고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의정 보고회를 통해 미디어 악법에 대한 대국민 흥보전을 펼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지역 모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3차 입법전쟁 등으로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의원직 사퇴까지 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여름휴가는 꿈 풀 수도 없다”며 “8월 한 달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이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부인 한인숙씨와 함께 평소 자주 찾는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따로 휴가계획을 잡지 않고 8월 한 달 아관과 시민사회 단체의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지도부가 29일 민생 탐방 프로그램의 두 번째 방문지인 충북 음성군의 혁신도시 추진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허태열·박순자·송광호·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 위원장, 이해훈·허진·김성태·이은재 의원 등이 나섰다. 또 정부 측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노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이번 충북 방문에서는 지난 27일 여수 방문 때보다 더 당 지도부의 참석 규모와 비중이 커졌다. 당시에는 허태열·박재순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정부 측 이용길 기획재정부 2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풀어안기 위한 한나라당의 의지도 표출로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과 정책연대를 포함한 ‘충청권 연대론’이 확산하고 있어 이날 지도부의 행보는 심상치 않게 해석됐다.

충청권 최대 숙원이 세종시법 처리에 있어 선진당과의 공조, 충청총리실 등 충청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주류 층에서는 친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유선진당과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자유선진당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세력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날 충청권 민심탐방을 시작으로 충청 민심을 읽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정책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통상적인 간담회를 갖는 대신 현안별로 간담회를 세분화 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충북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재 10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또한,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재로 충북 음성군청에서 혁신도시 관련 간담회를 청주공항에서 청주공항 관련 간담회를 갖기 위해 갖고 구체적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 지도부 충청은 왜 갔지?

### 선진당과 정책연대 급했나



#### ‘여수박람회 예산 따내자’

#### 발품 판 민주 김성곤의원

#### 정부 관련 부처 방문 협조 당부

것 등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SOC 예산의 축소는 4대  
강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안  
이며, 여수엑스포 예산은 개  
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편  
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미디어법 역풍’ 맞나

### 자체 여론조사, 지지율 급락… 민주당은 올라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 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 영 지지율은 31.1%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일 당무회의

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1.2%를 기록하며 ‘마의 40%’ 벽을 돌파했었다고 소개했었다.

따라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10.1%포인트 폭락한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도 26.3%로, 민주

당 지지율 26.1%와 비슷했다.

지난 6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35.5%, 민주당 25.7%였다. 미디어법 통과 뒤, 한나라당 지지율은 9.2%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

회여론연구소(KSRI)가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24.1%인 반면, ‘공감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가 결국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입장을 선포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60.3%, ‘특정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론을 따른 것으로 이해가 간다’는 응답이 33.7%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 대통령 “경기회복 아직 낙관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안심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 자신도 그러한 자세로 나라 일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적재산 관련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장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여름휴

가를 떠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국내의 한 휴양지에 머물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장급매

###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 13,200m<sup>2</sup> [약 4,000평]

■ 건물 : 6,600m<sup>2</sup>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m<sup>2</sup> [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m<sup>2</sup> [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기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3617-8810

####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본봉 및 배다하고 –  
특자 서비스국 (062) 220-0351

#### 성혼결혼정보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3층  
초혼, 재혼, 국제결혼 전문업체  
상담을 원합니다.  
(062) 384-1353

#### 청혼결혼학원

동구 계림동 5가지 3층 주제별  
성혼결혼 학원, 결혼, 신혼숙  
여행 등 청혼, 재혼, 국제결혼  
상담을 원합니다.  
(062) 224-7649

#### 배고파청국장

남구 방림동 673-5  
다슬기 청국장 추어탕 냉면사  
대표 강순례  
(062) 655-8769

#### 강촌

동구 충장로 1가 금전제과점 골목  
대표 정승기  
(062) 233-4012

#### 전복해물나라

서구 치평동 삼수지구 베니치아 충  
전복해물 직판점 산자작송 전복 도·소매  
대표 박정숙  
(062) 376-7727

#### 무등우선

동구 계림동 남도집 허식장 및 만두  
마을 첫째, 셋째 토요일 15시경매  
(062) 232-5303

#### 무진린트카

북구 용봉동 북구청 맞은편 농협앞  
전화번호 062-265-0888  
기사 대장, 헛기지 대장, 헛기지 서비스비무료  
(062) 265-0888

#### 올타리생선글비전문점

서구 치평동 면자골목내  
생선구이전문점  
대표 정정환  
(062) 456-5753

#### 농부의아들

서구 치평동 삼무방원 건너  
유기농 전문매장  
(011) 601-8071

#### 한백년결혼상담

동구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초혼, 재혼, 국제결혼 전문업체  
대표 최한주  
(062) 527-6672

#### 대동칠학작명원

남구 양림동 학강초등학교 정문앞  
시주, 궁합, 톡, 직방, 기여, 허위  
개업, 톡, 허위, 허위, 허위  
(062) 671-4814

#### 별미식당

동구 불로동 신동아모텔 주차장옆  
소마리곰탕, 수육, 추어탕, 청국장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 222-9089